

“법을 설하리” 큰 수레 굴리는 경이적인 순간



불화 속의 명장면 (17)

설법인 보살형 노사나불의 출현(상)



그림2: 노사나불 보관의 화불(化佛)

공주 신원사 괘불 '노사나불도'

석가모니는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은 뒤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각(正覺, 깨달음)을 통해 힘겹게 얻게 된 이 진리를 이야기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이미 여러석유포와 탐욕과 노여움의 격정에 불타고 있어, 자신이 깨달은 이 심심 미묘한 진리를 이야기해도 알아듣지 못하거나 와 아니면 곡해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석가모니는 고민 끝에 침묵하기로 합니다. 한참 주저하던 그는 깨달은 것을 혼자만 갖고 있기로 합니다.

이때 범천(梵天) 우주만물의 근원을 상징하는 고대 인도 신 브라흐마(梵天)가 나타나, “석가모니, 당신마저 침묵하면 이 세상은 희망이 없다”며 그의 설법을 적극 유도하는데, 이것이 바로 ‘범천권청(梵天勸請)’의 순간입니다. 석가모니의 일대기 중, 가장 중요한 갈림길에는 인도 고유의 가장 파워풀한 신이 등장하여 그를 돕는 경향이 있습니다. 석가모니의 정각의 순간도 그렇지요.

석가가 바야흐로 정각을 이루려 하자, 마왕 파손이 나타나 내가 이런 것은 정각이 아니라고 부정합니다. “이를 도대체 누가 증명할 수 있느냐”며 그의 신념을 뿌리채 흔들립니다. 이에 석가모니가 손가락을 들어 땅을 가리키자, 지신(地神)이 나타나 그의

정각을 천하에 증명하고 삼천대천세계를 크게 진동시켰다지요.

특도 후 깨달은 것을 ‘설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는 이 순간에는 인도 고유인 법전이 나타나, 안으로만 침착하려는 석가모니에게 눈을 들어 세상을 보라고 합니다. 그의 눈에는 가지각색의 근기(根機, 중생 개개인의 제각기 다른 능력 또는 인성)의 사람들이 들어왔지요.

그렇다면 설법(說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왜 이리도 중요할까요.

이는 자신만의 영혼 구제에 그치지 아니하면 이 깨달음을 가지고 대중을 구제하는 방향으로 삼느냐라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안으로 스스로 점수(漸修)하여 타고의 노력 끝에 깨달은 것, 그 특도의 지적 회열(法例)을 혼자만 만끽하는 단계가 ‘소승(小乘)’이라면, 이제 눈을 밖으로 돌려 무명 속에 해매는 민중을 구하고자 ‘설법’이라는 ‘자비의 방편’으로 세상 속으로 뛰어 드는 것, 이는 ‘대승(大乘)’이었지요. 석가모니의 설법 결심! 바로 소승에서 대승으로 전환이 일어나는 경이적인 순간인 것입니다.

해탈을 통해 저 피안으로 가버리지 않고 대중 구제를 위해 세상에 남아 그가 깨달은 것을 ‘설법’하는 이 순간은, 그가 ‘보살’로 전이되는 순간입니다. 고려말부터 보기가 시작해 조선시대를 풍미한 노사나불(盧舍那佛)은 바로 이러한 일종의 종교적 비약의 순간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노사나불은 ‘설법인(說法印)의 ‘보살형(菩薩形)’ 존상을 하고 있고, 이 점이 가장 큰 도상학적 특징이라 하겠습니다.(그림1)

두 팔을 양쪽으로 어깨높이에서 벌려 손바닥이 위로 가게 손목을 뒤로 젖히고, 손가락은 엄지와 약지가 살짝 만나게 등글게 설법인을 이룹니다. 그리고 분명 여래인데도 불구하고 보살처럼 화려하고 높은 보관에 천의와 영락으로 화려하게 장엄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여래라면 법의를 걸친 것이외에는 보관 및 장신구 등 아무런 호사스런 장식이 없어야겠지요.

어찌보면 여래도 아니고 보살도 아닌, 아니면 여래이기도 하고 보살이기도 한 존상. 결국 ‘보살형(菩薩形) 여래(如來)’라는 모순적 명칭을 붙일 수밖에 없는 존상입니다. 바로 이 여래와 보살의 중간적 존재, 바로



그림1: 공주 신원사 노사나불 괘불, 조선 후기

‘설법인’의 ‘보살형’ 존상 가장 큰 도상학적 특징 법신이 형상화될 경우 보신인 노사나불 형태 취해 화엄삼매 얻은 힘으로 자유자재하게 중생 교화

이 ‘대승보살(大乘菩薩)’의 개념 속에, ‘불교의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엄의 절대 진리는 비로자나(Vairocana 光明遍照, 세상에 두루 비치는 빛로 상징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효와 의상 등의 대승에 의해 화엄사상이 한창 꽃피었던 통일신라 시대부터 지권인(智拳印)의 여래로 만들어져 그 유구한 전통을 자랑합니다. 이 비로자나는 절대 진리 그 자체로, 각종 경전에 말이나 형상으로 표현 불가능하다고 구구절절 설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비로자나는 법신(法身) 그 자체이므로 형상화될 경우에는 보신(報身) 노사나불의 형태를 취합니다. 표현 불가능한 진리(비로자나)가

표현된 것(노사나), 그러니까 이 양자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존재라고나 할까요.

<화엄경>의 ‘현수보살품’에는 바로 여래와 보살의 근본 의미와 양자의 관계가 아주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모든 번뇌의 파도 가 사라졌을 청정한 마음의 고요하고 맑은 상태, 즉 적멸(寂滅)의 상태를 ‘해인삼매(海印三昧)라 하고, 여기에 만물이 있는 모습 그대로 투영되어 작용하는 상태를 ‘화엄삼매(華嚴三昧)’라고 합니다. 화엄학의 대가 카마타 시게오씨는 ‘법신의 묘한 과보로 장엄하는 것을 화엄삼매라고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화엄삼매를 얻은 힘으로 비로소 자유자재하게 중생을 교화하고 설법하고 무변무한한 모습으로 ‘작용(作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체(體)와 용(用)의 관계, 바로 해인삼매(體)가 법신 비로자나라면 화엄삼매(用)는 보신 노사나불 아닌가요. 그 작용 자체가 바로 법신(眞理)을 ‘장엄(莊嚴)’하는 행위가 되겠지요. 그렇다면 <화엄경(華嚴經)>이라는 경전이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집힐 것만도 같습니다.

중생의 원하는 것에 따라 무변하게 작용하여 나타낸 것이 바로 우리 앞에 계

신 수많은 부처와 보살, 그리고 호법신들이겠지요.

법신의 작용으로서의 보신 노사나불. 그러나 노사나불 속에는 세상에서 추존되는 모든 ‘여래 및 보살’을 통합하는 함축적 의미가 들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장엄이라고 하면 우리들은 보통 시각적 장식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화엄경> ‘십지품’에서는 ‘보살형(菩薩形)으로 삼계를 장엄하는 실천적 장엄을 강조합니다. 보살형 중에서도 가르침을 통한 중생 인도, 다양한 능력과 수준의 대중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결림이 없는 자유자재로운 설법의 변화가 요구되므로, ‘보살은 법사(法師)’라고 칭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연유로 노사나불이 여

래이면서도 보살의 형식을 취해 극

히 화려한 장엄을 하고 또

설법인의 수인을 결합

고 있는지, 그 가장

근본적인 종교적

의미를 알 수 있

겠지요.

강소연(미술사학자 · 홍익대 겸임교수)



그림3: 노사나불 두팔에서 뿜어나오는 빛줄기, 화상하는 부처와 보살, 온집한 제자

희담석 건강용품 특별할인판매

희담석의 특징은 에너지 방사능으로서,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거친 재료만을 사용하였습니다.

30년 경력의 장인이 희담석에 분청토를 섞어 썬 1300도의 가마에서 구워낸 제품입니다. 방사능이 탁월한 희담석 고유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이런 분께 권합니다

- 수행하시는 분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분
- 목과 팔목의 뻣근함을 느끼시는 분
- 피로가 누적된 분
-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은 수험생
- 컴퓨터를 많이 하시는 샐러리맨

* 희담석 염주는 수행에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물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물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물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ku Hillam)은 대규모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용암이 오지의 한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가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결과 양은 타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염주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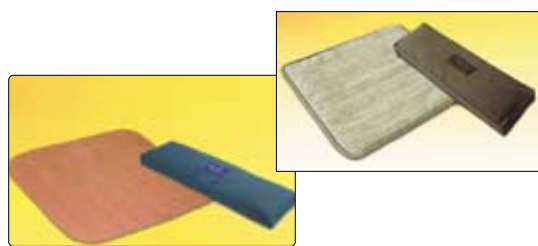
38,500원(염주, 합장주, 염주 주머니)
• 사이즈 : 직경 10mm • 재질 : 희담석, 분청토



희담석 방석

198,000 → 158,400원 (20%할인)

- 규격 : 425mm × 400mm
- 무게 : 950g ~ 1000g
- 색상 : 살구색, 취색
- 재질 : 질커버-고급 사넬천, 속커버-희담석 알갱이가 들어있는 고급 방수천



희담석 허리팩

44,000 → 35,200원 (20%할인)

- 총길이 : 120.5cm
- 표피 : 무독성 PVC sheet (항균 99.9%의 금가루 첨가)
- 내용물 : 희담석가루, 물, 수지
- 결제질 : 항균PVC시트 (기존PVC시트가 항균작용에 취약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항균작용을 위해 수지를 첨가 하여 항균99.9%의 항균작용을 하여 희담석의 강력한 기온과 함께 시트의 항균작용이 결합하여 더욱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보이차

600,000 → 500,000원

• 구성 : 보이차 14편, 자사통



보이차는 모두 수작업으로 제작하여 찢거나 쓰지 않은 최고급 보이차입니다.

보이차 애장지: 운남성의 서북지방(고리공산)으로 서쪽으로는 '티벳', 동쪽으로는 '상그리라'가 인접한 험한 산악지형으로 매우 청정한 지역임

자사통

보이차의 자사통은 이심 정산에 위치한 황용산의 홍니만을 사용하여 직접 작가에게 주문 의뢰한 작품으로 순수한 자사의 원료로 만듭니다.

- 크기 : 지름 29cm, 높이 37cm
- 종류 : 담녹색, 황토색



■수입원: 희흥다연
홍다연의 보이차는 식약청의 검사를 통해 적수입하고 있습니다.

주문 전화 현대불교신문사 영업팀 02)2004-8213~9
[국민은행] 006-25-0023-989 (주)현대불교신문사